



함평 '달맞이 공원' 조롱박 터널

함평군 월이면 달맞이공원에 조성된 조롱박 터널을 찾은 관광객들이 갖가지 조롱박을 감상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200여m에 이르는 이 터널은 조롱박과 수세미, 갖가지 호박 등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자연 학습장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07년 예산서 조작 밝혀내자”

나주시의회 특위 구성 합의

나주시의회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동료 의원이 폭로한 2007년 예산서 조작사건을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취했던 시의원들이 24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전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예산 조작 규모가 당초 나주시가 밝혔던 1억6천여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26억여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된데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예산도 조작했다는 설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예산조작 사건을 방치할 경우 '식물 의회'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명의 공무원이 사법처리된 공산화해단지 사건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지난 2005년 공산화해단지에 대한 국고보조금 불법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의원들이 특위구성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무산돼 결국 공무원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로까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의회가 뒤늦게라도 한목소리를 낸 데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모씨(43·나주읍)는 “이번 시의회의 특위 구성 결정을 환영한다”며 “나주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이 더 이상 늦춰질 경우,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여전히 서러운 섬마을 사람들

기반시설 부족...식수·전기·교통 이용 불편 전남도, 식수원 개발 등 종합대책 추진키로

전국 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도내 섬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유인도 262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반 시설 부족으로 식수를 비롯해 전기, 교통, 의료시설 등의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남도가 이들 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62개 유인도 가운데 상수도 시설이 돼 있는 곳은 84개 섬에 불과하고 나머지 178개 섬은 식수부

족으로 최고 5일째 급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의 경우 231개 섬은 한전 시설이나 자체 발전을 통해 24시간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31개 섬은 태양광 시설 또는 자가 발전기에 의해 시간제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생활필수품 가격은 육지에 비해 평균 30% 이상 비싸고 142개 섬에는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 발생시 의사가 있는 병원까지 후송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최근 도청에서 ‘섬 주민 불편사항 해소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각종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식수원 개발이 안된 178개 섬에 오는 2013년까지 총 5천660억 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식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1억 원을 투입해 취사용 LPG 해상 운송비를 지원키로 하는 한편 내년 소요 사업비로 국비 23억 원 지원 및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춘천 남이섬에 ‘함평 공원’

외국인 관광객에 나비·곤충엑스포 홍보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 ‘나비의 고장’ 함평 공원이 들어선다. (재)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사무국은 24일 “(주)남이섬의 강우현 사장과 이석형 함평군수가 최근 만나 남이섬 내 ‘피토원’에 ‘함평공원’을 조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약 660㎡ 규모로 조성될 이 공원에는 꽃무릇, 무스카리 등 사계절 꽃이 만발한 ‘나비나라 함평’의 홍보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또 이 공원은 내년 4월 18일 개최되는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마스코트인 ‘아름이’ 조형물과 리플릿, 포스터 등의 홍보물이 비치돼 엑스포 홍보 공간으로 이용된다. 함평군과 남이섬은 조만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함평군은 남이섬의 ‘상상 경영’ 등을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군 실·과·소별 남이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 함평엑스포 사무국은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이섬에 함평 공원이 들어설 경우 나비·곤충엑스포 해외 홍보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만 인근 양식장 오염 ‘골치’

고인 물 바다로 내보내 연안 생태계 파괴 우려 양식장 수용시 50억 필요...중앙정부가 나서야

순천만에 인접한 양식장 처리 문제를 놓고 순천시가 고심하고 있다. 순천만 갯벌 인근에는 민간업자에 의해 10년 전부터 20ha 규모의 양식장이 조성돼 있다. 양식장에서는 민물 때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은 뒤 바닷물을 순환시키기 위해 수개월 동안 양식장 안에 고인 물을 바다로 흘려 보내고 있어 순천만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

미를 비롯해 저어새, 도요새 등 200여종의 희귀조류와 120여종의 염생(鹽生)식물, 12종의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순천만 생태계가 파괴되고 경관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순천시 등이 나서 이곳 양식장을 수용해 갯벌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인 양식장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5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돼 해수면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식장을 방치했을 경우 장기적으로 순천만이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며 “천혜의 관광자원인 순천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은 2천 640만㎡ 규모에 254만㎡의 갈대밭이 조성돼 있는데 특히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람사(RAMSAR)총회 때 참석자들의 공식 방문지로 확정되는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름 탈출! 주작산 휴양림으로

강진군 4억 들여 새 단장

강진 주작산 자연 휴양림이 새롭게 단장됐다. 강진군은 4억원을 들여 원두막형 방갈로 등을 신축하는 등 주작산 자연 휴양림 시설을 확충했다. 군은 기존 10실 규모의 콘도형 산림휴양관만으로는 여름철 이용객을 감당할 수 없어 방갈로 4채를 신축하고 물놀이 시설 확충, 진입로 포장 등 새단장을 마쳤다. 콘도 및 방갈로의 객실 규모는 최소 23㎡에서 72㎡까지 다양하며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요

금은 하루 4만원에서 12만원이며 방마다 에어컨과 샤워시설이 완비돼 있다. 특히 다도해 청정해역인 강진만이 내려다 보이는 등 경치가 빼어나다. 주작산(해발 475m) 정상으로 이어지는 4km에 이르는 산책로와 삼림욕장, 등산 등도 배울 수 있는 관광거라다. 계곡에는 땅속 150m에서 끌어올린 암반수로 조성한 물놀이장 2곳과 텐트 사용이 가능한 캠프장 등도 등도 마련돼 있다. 문의 (061-430-3297, 3306-8) /강진=이병철기자 mood@

“군민을 가족처럼...” 구례군청 민원실 새단장



구례군청 민원실이 최근 새롭게 단장됐다. 민원실 창구는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 물줄기와 지리산 푸른 계곡을 형상화 했으며 농지·산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 지적공부 정리, 부동산 실거래신고 등을 전담하는 창구를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한 상담실과 인터넷 PC방, 건강 체크실을 비롯해 무인민원발급기, 현금지급기, 디지털TV 등 각종 편의 시설도 완비됐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세일글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최선을”

박미옥 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장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박미옥(51)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장은 “민원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 출신인 박 지사장은 전남여고를 졸업했으며 광주지역본부 예사회계팀장과 광주동부지사 부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남편 최장주(전남도 과학기술과장)씨와 3남이 있다. /영암=김현남기자 hnkim@

Advertisement for U-Bi Mode (유비모드) mobile phones.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purple mobile phone and text in Korean. The main headline reads '우리 집과 매장을 생방송으로 관리한다!' (Manage our home and store live!). Below this, it lists various features and services available through the U-Bi Mode system, including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of home appliances and security systems.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U-Bi Mode service center.

Advertisement for SK Telecom's 00700 service. The ad features a photograph of a smiling couple and the large number '00700'. The text describes the service as a comprehensive solution for managing home and office networks, including internet, TV, and phone services. It lists various features such as high-speed internet, digital TV, and home security.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K Telecom's customer service.